

지속가능한 유기견 기부 플랫폼

Must6 : 송인철, 갈수연, 김다름, 서현아, 심재현, 이동규

1. Problem 이게 왜 정말 문제인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APMS)에 따르면 매년 유기, 유실되는 반려견의 수가 만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59,000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한 것에 비해 2017년에는 75,000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며 유기견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여전히 가속화 되고 있다. 길가에 버려지는 유기견들은 보통 여러 동물 단체로부터 구조되어 보호소에 보내지지만, 턱 없이 모자란 예산의 한계, 유기견 대비 봉사자 수의 부족 및 유기견의 저조한 입양률로 인해 약 37,000마리의 강아지 중 8,140마리의 강아지가 안락사를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문제와 같이 유기, 유실되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동물보호단체가 기부 문화 동참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기부 문화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 때문에 이제는 기부로 유기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마저도 불투명해졌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10월 A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버려진 강아지를 구조하고 치료한다며 약 1300여명에게 98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지만, 유령견 구조 및 치료비로 쓴 돈은 8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9000만원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우리나라 3대 동물 보호 단체 중 하나인 '케어'의 대표가 후원금 중 3000만원을 법률 자문 명목으로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보호소 공간 확보의 목적으로 230마리의 강아지들을 안락사 시켰으며, 개인의 보험료를 후원금으로 내온 사실이 밝혀지며 유기견 단체의 기부금 투명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정기 후원자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부금 불투명성이 후원자들로 하여금 유기견 보호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기존 동물단체 회원들이 기부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초래되었다. 애니멀피플에 따르면, '동물권 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엔 하루에도 수차례씩 단체의 보호소나 유관 기관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후원 불투명성으로 인해 탈퇴하는 회원 수도 평소의 4~8배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며,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부참여율 보고서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기부 참여율이 31.6%에서 2011년 36.0%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오히려 26.8%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비영리 기관의 운영과 존립, 나아가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개인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기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기부자 개발 및 지속적인 기부 유입을 위한 연구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연구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시사점을 지니고 있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 Existing Solutions & Analysis 현존하는 해결 방안 종류의 분석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부 플랫폼

'마이크레딧체인'

마이크레딧체인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김하영씨에게 씨앗을 보내면 씨앗이 열매로 모이고, 모

인 열매는 매달 초 유기견 보호소에 후원금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다는 장점에 반해, 기부 과정에서 중간다리가 있고, 현재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앱스토어에 출시된 유기견 앱

앱스토어에 올라온 기부플랫폼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합유기견보호센터' '올라펫' '묘하개' '지켜줄개' 'DDD'가 있다. 하지만 5개 모두 기부금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5개 중 2개의 앱은 유기견 입양을 권장하는 홍보가 주된 목적이었다. 또한 나머지 3개의 앱은 기부를 위하여 만들어진 앱이었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앱에 접근조차 되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다는 등 기부자로 하여금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시사점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기존의 기부 시스템에서 어떤 방향성을 택해야 하는 것인가?

"개인기부자의 자기효용감과 기관서비스가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논문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을 높여주는 시스템이 존재하거나,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기부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기부를 유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솔루션의 한계점을 보완한 '개인 기부자에게 기부를 통해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주관적 만족감을 높여주는 방안'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기부자들에게 보여주는 방안'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기부 플랫폼과 차별성을 가지고자 한다.

3. Solution 해결책

①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의 투명성 제공

앱 스토어에 있는 기존 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부금 사용 확인 불가능'이라고 앞서 시사한 바 있다. 때문에 Must6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해 기부 시작부터 기부액이 사용되는 과정 모두를 블록체인에 올려 현존하는 기부 플랫폼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② 게임을 이용한 지속적인 기부 참여 유도

앞서 언급하였듯, 비영리 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선 개인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기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때문에 '게임'을 이용해 기부자들에게 '주관적 만족감'을 심어주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내가 후원하는 강아지와 비슷한 모습을 지닌 디지털 캐릭터로 생성한 후 My Haven에 저장하고, '사료주기' '미용하기'등 기능을 클릭해 나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캐릭터와 My Haven을 꾸밀 수 있게 하여 기부자가 스스로 '나의 동물'이라는 소유의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NFT를 활용해 내가 후원하는 유기견에 대한 족보 코인을 만들어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내가 좋아하는 개를 후원하며 그 개와 관련된 단 하나뿐인 NFT(족보)를 가질 수 있다'는 기능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한 현존하는 기부 플랫폼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 번째로, 기부자에게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내가 후원하는 강아지의 식사하는 모습 관찰 가능, 강아지의 사진의 접근은 오직 후원자만 가능 등)를 통해 게임을 넘어서 실제 내가 후원하는 강아지의 모습도 동시에 관찰하고, 후원을 하지 않은 다른 유저들과 분리되도록 접근성을 제한하여 '랜선집사'이지만 실제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듯한 효과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워치와의 연동성을 통해 유저가 다양한 기기로 자유롭게 게임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③ 블록체인을 접목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라클 문제 해결방안

기부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언제'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지, 내가 후원하는 유기견이 '정말 살아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기엔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Must6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기견들을 확인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이용해 실시간 동물들의 위치를 공유 받아 기부의 무용지물 사태를 막고자 한다.

4. 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

Must6의 '랜선집사' 프로젝트는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기부 플랫폼을 마련해주어 많은 이들이 쉽고 재미있지만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유기견 보호소 단체와 개인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기부자들 모두에게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때문에 유기견 보호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플랫폼을 활성화 및 확장시키고, 기부된 금액에서 최소한의 수수료를 발행하여 '서비스 유지'에 목표를 둔다.

5. Financials & Vision 시장분석 및 향후 방향성

현재 기부의 불투명성으로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은 끊임없이 유기견 후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기견을 위한 후원 쇼핑몰 '비코'에서 밝힌 이용자 수의 증가가 그에 대한 예시다. 2017년도에는 2860명이었던 고객 수가 2018년에는 3,632명으로 약 121%가 상승했고, 2019년에는 10,425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65%의 고객 이용률이 상승했다.

이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부 역시도 잠정적 기부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성인 남녀 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영리단체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보완한다면 응답자들이 평균 1만 3400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부활동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강형구 교수는 "기부 영역에서 투명성의 경제적 가치와 블록체인 등의 혁신기술이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며 "앞으로 비영리단체나 정부와 같이 기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랜선집사"는 유기견을 돕고자 희망하지만 보호 기관을 믿을 수 없는 잠정적 기부자들에게 불안감을 완화시키며 지속적인 기부를 독려할 수 있고, 유기견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손쉽게 모아 안락사 및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기견들을 위해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